

민주 공천 후폭풍...광주·전남 탈당 '러시'

권오봉 前여수시장·이석형 前함평군수 무소속 출마 선언 김성환 前동구청장도 중앙당 판단 예의주시 탈당 만지작

광주·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여수를 선거구에서 공천 배제된 권오봉 전 여수 시장은 4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경선은 시스템공천과 거리가 먼 불공정 경선"

이라며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권 전 시장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와 면접을 포함한 정성평가에서 경쟁 후보에게 뒤지지 않았지만 결국 컷오프됐다"며 "모든 과정이 공천에서 저를 배제하기 위한 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소속으로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받지 않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며 "정당 가입은

하지 않겠다"고 신당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수를 선거구에 대해 김희재 국회의원과 조계원 민주당 부대변인 간 2인 경선을 지르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개호 국회의원을 단수 공천한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 출마한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방침을 밝혔다. 이 전 군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석형·이개호·박노원) 3인 경선을 하라는 재심위의 의결 사안을 기각하고 이개호 의원을 단수 공천한

것은 밀실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기득권을 위한 황제·밀실·셀프 공천이라는 국민들의 냉소와 환멸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정에 국민의 울분이 커지는 중차대한 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민주당의 특혜 공천은 폭주하는 설국열차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군수는 또 "오늘 민주당과 인연을 모두 잊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또한 광주 동남을 선거구에서 컷오프된 김성한 전 동구청장도 탈당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앙

당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초 김 전 동구청장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경선에서 안도걸 예비후보에게 패배한 이병훈 예비후보가 전남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 등 불법·부정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일단 보류했다. 이 예비후보가 제기한 문제는 현재 중앙당 최고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요즈음 세상에 개, 돼지에게도 하지 않는다"며 "광주가 민주당을 지지해주는 만큼 민주당도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록 민주당의 선택은 받지 못했어도 깨어있는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며 "조만간 출마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

금지사, 꾸짖치 中총영사와 교류 활성화 논의

주광주중국총영사 부임 인사차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취임 인사차 방문한 꾸짖치 제6대 주광주중국총영사와 변함없는 우정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꾸짖치 총영사는 지난 2월20일자로 부임한 이후 한국 외교부 등 중앙기관을 방문했으며 이날 김영록 지사 예방을 시작으로 공관 관할지역 내 지방정부 협력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지사와 꾸짖치 총영사는 그동안 다져온 상

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향후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호남지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한·중 지방정부 교류가 다방면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꾸짖치 총영사가 한·중 지자체 교류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꾸짖치 총영사는 "전남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4일 도청을 방문한 꾸짖치 신임 주광주 중국 총영사 일행과 환담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22대 총선 프리즘

송갑석 "하위 20%, 용기있게 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 예비후보(광주 서구갑)가 4일 제22대 총선 광주 서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의원 평가 하위 20%라는 불명예를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며 "하위 20%라는 낙인은 명예가 아닌 명예이고, 치욕이 아닌 영광이라고 감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심상 광주의 국회의원답게 바르게 판단하고 용기있게 말했으며 두려움 없이 행동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 판단과 평가를 유권자와 당원 동지들에게 온전히 맡기겠다"며 "송갑석의 승리가 민주당 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선강 기자



서삼석,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4일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서 예비후보는 영암·무안·신안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책임자가 누구인지 군민께서 판단해 달라"며 "검증된 경험과

실력으로 영암, 무안, 신안의 발전을 더욱 힘있게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22년 만에 광주·전남 지역구 출신 국회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 예비후보는 전남 국비 예산 9조원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섰다. 특히 2024년 영암·무안·신안 주요 신규사업 18건 110억7천만원, 계속사업 7건 3천400여원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시킨 바 있다. /김진수 기자



신정훈,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예비후보(나주·화산)는 4일 22대 총선 공약으로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신 예비후보의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는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업재해대책법 개정 ▲자연재난 복구비용 실거래가 수준 인상 ▲배·복숭아 등 다년생 작물 특성 반영 지원책 ▲탄저병 등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범위 확대 ▲농작물 화재보험 사각지대 보완 ▲일조량 감소로 인

한 시설원에 작물 재해 인정 등을 골자로 한다. 그는 "재난 시 국가의 역할은 구호적 수준이 아닌, 실질적 피해복구와 생업, 일상을 재기할 수 있는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이 돼야 한다"며 "재해 대책 현실화와 재해 보험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투트랙을 통해 피해 규모와 수준에 상응하는 농업재해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김승남, '농어촌여성 7대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4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여성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농어촌 여성안심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농어촌 여성안심 7대 공약'은 ▲농어촌 공동돌봄센터 등 농어촌 보육 기반 확대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등 특수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 ▲농

번기 가사 부담 완화를 위한 마을공동급식 및 경로당 주5일 점심밥 확대 ▲출산 여성농업인 대상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농작업 다목적 쉼터 조성 등이다. 김 예비후보는 "22대 국회에서 농어촌 여성,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 기자



Panasonic
경험하지 못한 절대휴식
REAL PRO MAN1

블랙 아이보리 베이지

GOOD DESIGN AWARD 2023

89년
선진만가기술집약체

4년 무상보증
1년 + 3년

파나소닉 안마의자 3월 봄맞이 이벤트

제품별 할인 및 기프트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기간: 2024.3.1 ~ 2024.3.31

MAK1	MAJ7	MAF1	MA32	MAC9	MA22	MA05
------	------	------	------	------	------	------

※판매량에 따라 혜택은 다소 상이합니다

파나소닉 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